

· 김 윤 기

아테네는 전혀 다른 2개의 얼굴을 가진 도시다. 고대 그리스를 상징하는 아클로폴리스와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릿틀아메리카」란 별명을 갖게된 신타쿠마광장(憲法廣場)이 다른 두개의 모습을 대표한다.

고대 그리스는 유럽 근대문명의 발상지였고, 지중해 일대를 지배한 최강국이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당시의 푸른기상이

교통수단의 발달과 해외여행 자유화 물결을 타고, 이제 세계의 나라들이 우리 생활과 성큼 가까워진 듯하다.

그러나 단순한 여행보다는 좀더 의미있고 경제적인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지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本誌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1년간 연재하여, 독자들의 해외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註〉

그대로 스며있다.

그러나 기원전 2세기경부터 로마, 서고트, 슬라브, 아랍, 터어키 등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 쇠망의 길을 걷다가 1844년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으나, 당시의 아테네 인구는 겨우 5천명에 불과했다. 도시라기보다는 작은 마을규모에 불과했다. 그 뒤(1920년이후)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면서 오늘

##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날에는 250만명을 수용하는 세계적 도시로 발전했고, 수도권에 속하는 피레에후스를 합치면 4백만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된 것이다.

그리스신화에 보면 아테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토지영유권 싸움을 하던 장소였다. 그 여신의 이름이 아테네의 유래가 된 것이다. 아테네의 시문장도 철모를 쓴 아테나와 여신의 옆얼굴이다.

### 불과 9년만에 완공된 파르테논 神殿

아크로폴리스는 해발 150미터의 언덕위에 있다. 당시에는 한개의 도시가 한개의 국가였다. 이런 도시국가를 가리켜 폴리스라고 불렀다. 폴리스에는 몇가지 구비조건이 필요했다. 즉 ①외적의 침공을 방어하기 쉬운곳, ②식량의 자급이 가능한 곳, ③물이 있는 곳이어야 했다. 아크로폴리스는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잘 갖추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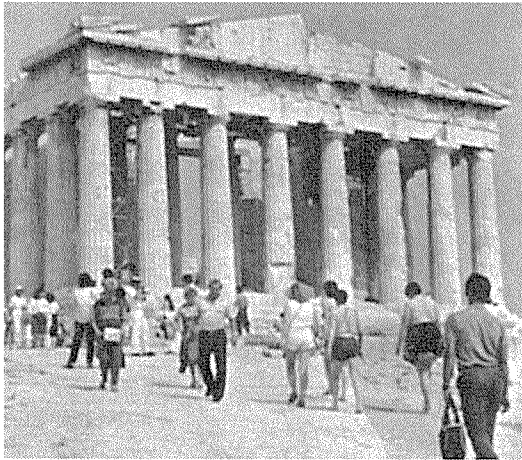
아크로폴리스 언덕에는 2천5백여년이란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 주춧돌과 돌기둥 등 유적이 남아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폭적인 건축물은 파르테논 神殿. 46개의 도리스식 돌기둥이 떠 받치고 있는 현대리석의 이 신전은 BC438년에, 공사기간 9년이

라는 경이적인 스피드로 완성된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그러나 1687년 9월 26일, 베네치아군대의 포격으로 아름다운 이 신전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베네치아군은 아크로폴리스 정복 후 파편이 된 조각상들을 가져갔고, 그뒤 터키,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일부 반출해갔고, 운반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 바닷속에 가라앉음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사장시키기도 했다. 기구한 운명의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 기둥 일부와 붕괴직전의 지붕 일부가 남아 있을 뿐이다.

파르테논 신전 뒷쪽으로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에는 약탈자들이 가져가고 남은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는 입구의 블레門, 아테나니케 神殿, 에레크테우스 神殿 등의 유적이 남아있다.

언덕의 아랫쪽으로는 2개의 노천극장이 보인다. 하나는 오테온 음악당이고 하나는 디오니소스극장이다. 1만5천명을 수용했다



아크로폴리스 유적지를 구경하는 관광객들

는 노천극장은 지금은 돌계단과 부서진 무대가 일부 남아있다.

### 古代 市場 유적지 「아고라」

흔히 아테네를 찾는 사람들이 빠뜨리고 지나가는 유적이 있다. 고대아고라 지구다.

아고라는 그리스어로 「市場이 있는 광장」이란 뜻이다. 이곳에는 여러가지 신전, 회의장, 제단, 정부청사, 조폐공장, 수도국, 시장, 스토어 등이 있었던 아테네 시민의 생활터전이다.

역시 대부분이 파손되고 주춧돌과 기둥들이 몇개 남아 있으나, 소크라테스, 헤로도토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다. 예술가, 학자, 정치가들이 앉아서 토론을 즐겼을 것으로 여겨지는 스토어의 긴 복도의 콘크리트 토대석 등이 아직도 남아있다.

아고라의 동쪽에 있는 아타로스의 스토아는 완전히 복원되어 우아한 당시의 건축미를 실감케 한다. 아타로스의 스토아는 가

장 화려했던 변화가였다 한다. 아테네시내는 가는 곳마다 고대그리스의 유적이 발견된다. 케라미코스는 고대그리스의 공동묘지다. 기묘한 조각을 한 묘비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도자기들을 전시하고 있는 케라미코스박물관이 묘지입구에 있다.

도시 한복판에는 2층의 하도리아누스문이 서 있다. 아크로폴리스와 하도리아노폴리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건립한 이 문은 높이가 18미터, 폭이 12미터나 되는 대리석 건축물이다.

### 플라카지구의 타베루나들

신타쿠마광장은 현대아테네의 도시 중심부에 있다. 정면에 왕궁이 있는데, 이 왕궁 발코니에서 헌법을 공포하여 헌법 광장이라 이름이 붙게 되었다. 공화국이 된 이래, 이 왕궁은 국회의사당이 되었다. 정사각형 모양의 광장에는 오렌지, 밀감나무가 즐비하고, 나무 그늘에는 노상카페가 있다. 시민이나 여행자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광장 주변에는 호텔, 은행, 항공사 등 큰 기관들이 모여있다.

산타쿠마광장의 북쪽 오모니아광장 부근은 아테네의 서민가이다. 영화관, 식당, 카페, 싼 호텔 등이 집결되어 있고, 흥등가도 이 부근에 모여있다. 아테네 시민들의 농도 짙은 생활상을 직접 보려면 이곳에 와야 한다.

그러나 가장 아테네다운 명소라면 역시 플라카지구를 꼽아야 한다. 플라카지구는

밤의 관광지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플라카가 유명하게 된 것은 어쩌면 타베루나와 부즈키가 이곳에 몰려있기 때문이지 모르겠다. 부즈키는 그리스의 민속음악으로 만도린 비슷한 소리를 내는 현악기로 연주한다.

사랑의 노래, 이별의 노래같은 애수 편곡조가 부즈키의 특징이다. 부즈키 음악과 함께 실루타키란 그리스의 민속춤이 있다. 마치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모습같은 이 춤은 템포가 다소 느린 것이 특징이다. 부즈키와 실루타키를 보려면 밤 8시이후 플라카지구에 가야한다.

타베루나는 일종의 선술집형의 레스토랑이다. 타베루나에는 1~3인조의 악단이 있고, 부즈키음악과 민속춤을 보여준다. 플라카에는 1백여개소의 타베루나가 있는데,

그리스의 정통요리와 술을 팔면서 쇼도 제공한다. 타베루나는 밤 8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영업한다.

타베루나 중에는 지붕이 없는 노천카페가 많은데, 비가 별로 오지않고, 겨울에도 춥지않는 기후조건이 이런 업소를 만든것 같다.

그리스인들은 랫시나라는 포도주와 우조라는 증유주를 즐긴다. 랫시나에는 소나무 잎 향기가 들어있어 낯선 사람에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술은 고대그리스시대부터 애용해오던 이나라 토산주이다. 우조는 우리나라의 소주를 닮은 술인데, 물을 섞으면 뜸물처럼 뿌영게 된다. 랫시나나 우조를 마시면서 플라카의 밤구경을 하는 것은 아테네를 찾는 관광객들에겐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아테네의 중심가  
신타쿠마 광장



66

아테네 시내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서점이  
 별로 없는것. 유럽  
 문화 발상지 답지 않게  
 아테네 시민들은 책을  
 잘 보지 않는다.  
 그 대신 토론을 즐긴다.

99

책대신 토론즐기는 아테네市民

아테네에는 작은 박물관들이 많다. 오랜 문화적 유산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테네를 대표하는 박물관이라면 역시 국립考古學박물관을 꼽을 수 있다. 그리스 각지에서 출토된 조각·도자기·장식품·묘비 등을 한자리에 모우고 있어 세계에서 유수의 고대박물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명한 소장품으로는 아가메무논의 황금마스크, 소년기사상, 포세이돈神像 등이 있다.

아크로폴리스박물관, 아고라박물관 등은 모두 특정지역에서 수집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고, 그리스 민족의상과 엘그레조의 초년기의 작품이 소장된 베나키박물관, 중세 그리스正敎의 미술품인 비잔틴 미술관, 그밖에 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 의사당박물관, 민속박물관, 전쟁박물관 등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신타쿠마광장과 오모니아광장을 직선으

로 잇는 스타디우(Stadiou)路 주변은 아테네의 대학가다. 아테네대학, 아카데미, 국립도서관 등, 이 나라 지식의 산실이라 할 3개의 건축물이 나란히 서 있고, 그 뒷쪽으로 오페라극장과 YMCA, YWCA회관도 있다.

아테네 시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중의 하나는 서점이 별로 없는 것. 유럽문화의 발상지답지 않게 아테네 시민들은 책을 잘 보지 않는다. 그대신 토론을 즐긴다. 책대신 토론으로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고 넓혀가는 것 같다. 기원전 5세기부터 일찍이 민주주의를 시도했던 나라의 자랑스런 유산이다.

### 古代경기장 그대로의 올림픽스타디움

아테네는 제1회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도시이다. 당시의 올림픽스타디움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이 경기장의 특징은 고대 그리스 경기장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한 형태로서 C자형이다. 이 스타디움의 역사는 꽤나 오래다. 기원전 330년에 건설되었고, 그뒤 하도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관중석이 대리석으로 개축되었으며, 19세기말에 다시 전면적으로 개수, 올림픽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올림픽스타디움은 아테네가 자랑하는 명소의 하나로서 관광코스 중 꼭 끼어있다.

〈필자 = 해외의학 교류회장 ·  
 최신 여행정보 발행인〉